

# 산업차관 “조선 기자재社 집중육성 인력부족·RG 발급 등 애로 개선”

(한급보증)

### ‘제21회 조선해양의 날’ 행사 조선산업 소부장 강화방안 마련 인력확보 위해 外인 활용 방안 협의 중 소형사 RG발급 사항 모니터링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수퍼를 조선 기자재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나아가 조선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1차관은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21회 조선해양의 날’ 행사 축사를 통해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조선산업 소부장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급변 중 ‘조선산업 소부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차관은 축사에서 우리 조선기업들이 LNG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산품 수주 등을 통해 약 200조원에 달하는 3~4년치 안정적 일감(3911만C GT, 7월말)을 확보한 것을 치하하고 “조선산업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인 인력부족, RG(한급보증·repayment guarantee)발급 애로 등을 더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현장의 숙련인력 확보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외국인력 활용 제도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6일 부산 사하구 선보공업을 방문해 조선 핵심 기자재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이와함께 중소형 조선사들의 RG발급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시 추가개선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돕기 위해, 액화수소 운반선, 자율운항선박 플랫폼 등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난 7월 발표한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선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삼성중공업 장해기 부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HD현대중공업 전승호 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33명이 정부표창을 받았다.

장해기 부사장은 LNG 화물창 및 친환경 추진·에너지 저감 기술 적용 개발을 주도한 공적을, 전승호 부사장은 세계 최초 LNG 연료 추진 원유운반선 설계·건조 등 공적을 인정받았다.

‘조선해양의 날’은 선박수주 1000만 톤을 돌파한 1997년 9월 15일을 기념해 매년 이날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2004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성안 한국조선해양플랜트 협 회장(삼성중공업 대표), 김종서 한화오션 사장, 이상철 HJ중공업 대표 등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인사 25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농진청, 국내 개발 새로운 과일품종 출하

사과 ‘아리수’ 배 ‘원황’ 등 판매 병해충 위험 분산·선택 폭 넓혀



사과·배·포도 등의 새로운 품종이 속속 출하돼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신품종은 병해충의 위험을 분산할뿐더러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 전망된다.

11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과일 품종이 30년 전에 비해 시장에 많이 진입해 있다. 농진청은 지난 2010년 사과 ‘아리수’를 개발했다. 2020년 이후에는 ‘이지폴’과 ‘아리원’, ‘감로’ 등도 개발해 지난해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앞서 1988년엔 국내 육성 1호 사과 ‘홍로’를 개발한 바 있다. 30년 전인 1990년대 초 추석을 앞둔 시장에서는 도입종 ‘후지’나 ‘쓰카루’가 많이 유통됐다. 두 품종 모두 추석 때가 아닌 탓에 소비자가 최상의 맛을 느끼는 데 한계가 있었다.

숙기가 9월 상순인 아리수는 맛이 좋고 껍질에 색이 잘 드는 데다 탄저병에 약한 홍로를 대체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급 10년여 만에 재배 면적이 여의도 면적(290ha)의 3배 이상인 970ha까지 늘어나며 홍로(5474ha)를 뒤쫓고 있다.

김명수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이날 세종농림축산식품부 청사에서 설명회를 갖고 “과일의 가격 변동 폭을 줄이고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다양한 품종이 유통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990년대(왼쪽)에 비해 2024년 기준 국내에서 육성한 사과 및 배 품종 수가 늘었다. /농진청

이어 “품종 다양화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배는 30년 전엔 도입종 ‘장심랑’, ‘신고’ 위주로 유통됐다. 물론 아직도 신고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최근 들어 국내 육성 배 ‘원황’도 시장 판매대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원황 재배 면적은 지난해 기준 421ha다. 여기에 우리 배 ‘신화’ 역시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늘어나 183ha까지 규모가 늘어난 상태다. 이들 국내 육성 품종 보급률은 지난해 기준 14.9%로 집계됐다.

포도의 경우, 30년 전 추석 시장에서 ‘캠벨얼리’와 ‘거봉’ 등 일부 품목만 유통됐지만 앞으로는 독특한 향, 식감, 색을 지닌 품종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새콤달콤하고 은은한 머스켓 향이 나는 ‘홍주씨들리스’는 경북 삼주와 김천 등 포도 주산지를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증가 추세에 있다. 솜사탕 향이 나고 독특한 포도알 색을 띠는 ‘슈팅스타’도 농가 소득증대 측면에서 기대를 받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특성대학원 선정

강원대, 서울대 등 4개 대학과 ‘맞손’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오는 12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 컨벤션센터에서 강원대, 서울대, 전북대, 충북대 등 4개 대학과 제2기 야생동물 질병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야생동물 질병 특성화대학원’이란 야생동물 질병 대응을 위한 현장 맞춤형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된 지원 사업이다. 제1기 사업의 경우 2021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경상국립대, 서울대, 전북대 등 3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번 제2기 사업은 지난 7월부터 공모와 심사 절차를 거쳐 4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학교별 석·박사

과정 모집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야생동물 유래 인수공통감염병 등 교과 과정을 개설한다. 교재개발 및 현장실습 등을 통해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는 전문인력의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석·박사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전문교과목 이수 외에도 관련 논문 발표, 전국야생동물구조센터와 연계한 실습 훈련 등을 통해 야생동물 질병 전문가의 역량을 갖추게 된다. 4개 대학은 3년의 사업기간 동안 총 5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2기 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통해 관련 전문인력을 꾸준히 양성해 통합적 관점의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 2030년까지 광역버스 25% 수소버스로 보급

환경부 ‘수소버스 보급활성화 설명회’ 경기도·인천 광역버스 관계자 대상

정부가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에 수소버스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30년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수소버스 보급활성화를 위한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광역버스 노선 업무 담당자와 해당 지역 내 광역버스 운수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수소버스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보급 고상 수소버스. /환경부

환경부의 수소버스 보급계획 및 지원 현황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대 광위의 광역버스 대상 수소버스 전환 계획 ▲현대자동차와 하이엑시움모터스의 수소버스 제원 ▲SK E&S와 코하이젠의 수소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이 소개된다. 수소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

지 않는 무공해차로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긴 광역버스 노선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연기관 버스가 승용차에 비해 연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만큼, 광역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경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는 확고한 탄소중립 노력과 함께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 수소 광역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 ‘전도 위험 가구’ 등 54개 제품 리콜명령

국표원, 916개 제품 안전성 조사

전도 위험이 있는 가구, 유해물질이 검출된 쌍꺼풀용 테이프 등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54개의 시중 유통이 차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전지, 전동킥보드, 가구 등 73개

품목, 91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4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명령 처분을 받은 54개 제품 중 어린이제품이 26개로 가장 많았고, 전기용품(14개), 생활용품(14개) 등이다. 특히,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가구

(40%), 쌍꺼풀용 테이프(33%), 어린이용 장신구(27%), 전지(13%) 순으로 올해 상반기 평균 부적합률인 6.1% 대비 높은 수준이어서 구매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54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 정보센터’,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한기대, 직업훈련 혁신 우수사례 6점 선정

패러다임 변화 주도 사례 발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직업훈련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진행한 ‘2024년도 직업훈련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훈련기관 혁신 분야 12점 ▲훈련과정 혁신 분야 11점 등 총 23점이 접수됐다. 직업훈련 및 예

듀테크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총 최우수상 2점, 우수상 1점, 장려상 3점 등 총 6점(기관혁신 2점, 과정혁신 4점)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글로벌산업기술교육원(과정혁신 분야)은 자체 과정개발 모델인 ‘ARTIO’ 적용을 통해 뿌리산업 훈련과정에 첫 지피티, 가상현실 등 에듀테크를 접목해 훈련 효과성을 높였다. /김대환 기자